ISSUE BRIEF

이슈브리프 통권 234호
(2021. 1. 5)

시진핑 주석 신년사 평가와 정책적 고려사항

제234호

양갑용 외교전략연구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SS
www.inss.re.kr

국문초록

2020년 12월 31일 시진핑 주석은 취임 이후 여덟 번째 신년사를 발표했다. 신년사의 지속과 변화 측면에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지속 측면에서는 문안 인사에 대한 '호명'을 대폭 줄인 패턴이 지속되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과 빈곤탈출 등 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계속 강조했다. 또한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여전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외교 활동, 민생, 고품질 발전 등에 대한 정부 노력을 계속 강조했다.

변화 측면에서는 신년사의 핵심 키워드가 다양해졌다. 다음으로 국면 돌파를 위한 동력으로서 '인민'의 역량에 호소하고 있다. 또한 신년사 분량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국내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인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용어 사용이 늘었다.

금번 신년사 평가는 다음과 같다. 중국이 처한 국내외 상황에 대한 인식을 솔직히 드러냈다. 다음으로 내적 역량을 결집하여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다는 자신감이 담겼다. 또한 내수에 집중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빈곤탈출의 성과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강조했다.

우리의 정책적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국의 국내 경기 활성화에 맞추어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국이 여전히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강조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의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길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과학기술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이에 대한 경쟁력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핵심어 : 시진핑, 신년사, 내수, 인류운명공동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시진핑 주석 신년사 평가와 정책적 고려사항

양갑용 (외교전략연구실)

시진핑 주석은 2020년 12월 31일 저녁 7시(중국 시간) 국가주석 취임 이후 여덟 번째 신년사를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신년사는 ▲국내외 국민들에게 보내는 인사 ▲한 해 사업에 대한 총체적 평가와 구체적 사업의 성과 ▲미래 비전 혹은 사업에 대한 메시지 ▲새해 다짐 등으로 구성된다. 2020년은 코로나19와 미중갈등이 복합적으로 중국에게 영향을 미쳤다. 2021년 중국의 대응이 다시 주목받는 상황에서 신년사가 바로 그 이해의 단초를 제공한다. 2021년 신년사를 지속과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고, 평가와 전망을 통해서 정책적인 고려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2021년 신년사의 지속과 변화

먼저, 신년사는 문안 인사에 대한 '호명'을 대폭 줄이고 '여러분'으로 축약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19년부터 시작되었다. 2014년 신년사부터 2018년 신년사까지는 "전국 각 민족 인민, 홍콩특별행정구 동포, 마카오특별행정구 동포, 타이완 동포와 해외 화교, 세계 각국 각 지역의 친구"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등장했다. 일일이 '호명'함으로써 애정을 드러냈다면 이번 신년사는 문안 인사는 보내지만 '호명' 하지 않는 새로운 관행을 3년째 보여주고 있다. "세상은 한 가족(天下一家)"이라는 '지구촌'의 시각에서 과감하게 '호명'을 줄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여느 해 신년사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빈곤탈출에 대한 성과와 그에 따른 자신감의 표출이 다시 강조되었다. 시진핑 정부의 핵심 정책 목표인 과학기술의 성장과 빈곤탈출의 어젠다가 2014년 신년사부터 올해 신년사까지 꾸준히 언급되었다. 과학기술과 빈곤탈출은 국가 어젠다인 동시에 시진핑 주석의 대표 브랜드이기 때문이다.

셋째,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에 대한 기대 내지 희망도 신년사에 그대로 담겼다. 2014년 신년사에서는 “지구를 공동의 아름다운 보금자리(家園)로 만들기”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2015년 신년사에서는 “공동운명체 정서 구현”이라는 말로 바뀌었으나 그 내용은 사실상 인류운명공동체에 관련된 것이다. 초기 다양한 논의를 정리하여 인류운명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확정한 이후 올해까지 신년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중국식 국제화와 다자주의의 최종 종착점이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임을 신년사는 다시 보여주었다. ‘세상은 한 가족(天下一家)’, ‘지구촌’, ‘일대일로’의 재차 강조도 동일한 맥락이다.

넷째, 표현 방식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외교적 활약, 민생 생활 안전과 고품질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 등도 변함없이 언급되었다. 특히 올해는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중국만이 유일한 플러스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일종의 자긍심과 애국심의 고양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미래 비전으로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노력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도 신년사가 담고 있는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

반면에 이번 신년사에서 기존 관행과 달리 변화를 보인 부분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신년사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다양해졌다. 2021년 신년사 주요 키워드는 인민지상(人民至上), 생명지상(生命至上), 수망상조(守望相助), 자신자강(自信自強), 자강불식(自強不息)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존 신년사에 담았던 새로운 변화, 신시대, 당풍, 정풍, 발전이념, 뉴노멀 등 구체적인 정책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한층 거시적인 시각과 자세를 담아내고 있다.

둘째, 국면 돌파를 위한 동력으로서 ‘인민’의 역량에 호소하는 내용이 신년사에 추가되었다. 예를 들어, 2020년 신년사에서 강조했던 신변화(新變化), 새로운 생기

(新氣象), 중국 역량(中國力量), 중국 풍채(中國風采) 등 분위기 일신을 강조한 것과 달리 올해 신년사는 구체적인 행동과 행동의 동력으로서 '인민'과 '인민 역량'을 직접 강조했다. 어려운 국면 돌파를 위한 동력으로서 '인민'의 역량에 호소하려는 정치 동원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방역 과정에서 '인민의 노고 치하', '인간에 대한 큰 사랑(人間大愛)', '인민 중심 작풍(作風)' 등 '인민'을 반복적으로 소환하고 있다.

셋째, 신년사 분량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신년사 분량은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중시하느냐에 따라 증감이 다르게 나타난다. 올해는 최근 몇 년간 계속된 신년사 분량의 증가 추세와 달리 처음으로 전년보다 분량이 적었다. 예를 들어 2021년 신년사는 1449자, 2020년 신년사는 1935자, 2019년 신년사는 1874자, 2018년 신년사는 1731자, 2016년 신년사는 1270자, 2015년 신년사는 1391자, 2014년 신년사는 772자로 채워졌다. 2021년 신년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던 분량이 꺾였다는 점에서 이채롭고, 분량을 줄임으로써 더 많은 해석의 여지를 담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넷째, 이번 신년사는 가능한 한 외부 변수에 대한 언급을 차단하고 절제하는 선에서 국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신년사가 내부 문제에 집중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예컨대 해마다 강조하던 국제 문제, 홍콩·마카오·대만 문제에 대한 그 어떤 표현도 이번 신년사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다. 논란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문제 소지를 아예 언급하지 않으려는 수세적인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년사 전체에서 국내성과를 3분의 2 이상 강조한 것도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신년사가 형이상학의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민의 눈높이에 맞춘 진화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신년사에서 인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인터넷 용어나 네티즌들이 사용하는 상용어의 활용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랴오뿌치(了不起, 훌륭하다)’라는 표현은 매우 평이해서 오히려 대중이 주목하고 있다. 대중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민 친화적 모습의 체현이다. 2015년 신년사에 등장한 ‘뎬짠(點贊, 좋아요)’, 2017년 신년사에 등장한 ‘세상에 공짜란 없다’, 2019년도 신년사에 등장한 ‘게이리(給力, 최고예요)’라는 표현의 사용과 동일 맥락이다.

2021년 신년사 평가와 전망

먼저, 중국이 처한 국내외 상황에 대한 인식을 솔직히 드러냈다. 2021년 신년사에는 “지극히 평범하지 않은(極不平凡)”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이는 2019년 신년사의 “대변화(大變局)”, 2017년 신년사의 “평범하지 않은(非凡)”, 2015년 신년사의 “잊기 어려운(難忘)”, 2014년 첫 신년사의 “매우 평범하지 않은(很不平凡)”이라는 표현의 결정판이다. 2020년이 여느 해보다 지극히 매우 어려웠다는 현실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내적 역량을 결집하여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다는 자신감이 담겼다. 인민지상(人民至上), 생명지상(生命至上) 등에 대한 강조와 인간에 대한 큰 사랑(人間大愛)이라는 표현으로 중국의 노력을 긍정했다. 바이러스 책임국과 발원국이라는 외부 비난을 우회하여 자긍심 고취로 내부 단결을 꾀하려는 목적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쌍순환’ 전략에도 불구하고 우선 국내 대순환, 즉 내수에 집중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번 신년사는 국제순환보다는 국내순환에 더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 ‘자신자강(自信自強)’의 강조는 마오쩌둥 시기 ‘자력갱생(自力更生)’의 이미지와 오버랩 된다. 즉, 인민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이른바 인민주의적 방식의 국면 돌파를 시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넷째, 빈곤탈출의 성과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지난 8년 만에 빈곤탈출에 성공했음을 공식 확인했다. 이는 13차 5개년 계획(2016년

~2020년)의 성과 획득 및 전면소강사회건설의 승리를 의미한다. 이 성과는 또한 제14차 5개년 계획(2021년~2025년)과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동력임을 분명히 했다. 즉, 빈곤탈출 이후 공동부유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에 나설 것임을 공식화 했다.

정책적 고려사항

신년사는 국민들에게 문안과 위로, 성과에 대한 공유, 자긍심 고취와 함께 미래 방향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신호이기도 하다. 따라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변화와 함께 행간에 녹아 있는 미시적 차원의 중국의 현실 인식을 포착해내고 그에 대한 대응 방향과 실천 과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국과 깊게 연계되어 있는 우리의 과제이다. 신년사를 단지 '덕담' 수준의 인사치레 정도로만 간주하기에는 그 안에 담고 있는 '인류', '평화', '협력', '지구촌', '한 가족' 등 내용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의 미래 생존과 번영에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우선, 2021년 중국 정책의 우선순위가 국내 경기 활성화에 맞춰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내수 확충에 집중하는 중국의 전략에 맞춰서 우리가 중국 내수 시장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무엇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 우리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재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신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문제에 할애한 점을 고려했을 때 해외진출(走出去)보다는 국내문제에 자원이 집중될 것을 고려하여 중국 국내 자원 동향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여전히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강조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거시적인 담론차원의 언급이긴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대외관계 관련 방향이나 정책이 공개된 이후 중국의 대응이 빨라질 수 있다. "세상은 한

가족(天下一家)”이라는 표현은 중국이 국제사회와 담을 쌓고 독자적인 생존 공간을 모색하지는 않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국제사회와 함께 가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RCEP 협상 타결, 유럽과 투자협정 체결 이후 CPTPP 등 국제레짐에 대한 중국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은 신년사에서 국가의 전략목표로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다시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이 신년사에서 직접 강조한 이상 집권 기간 이 전략목표는 큰 변화 없이 계속 추진될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중국 전략 방향이나 구체적인 정책 조치에 대한 치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중국은 체제, 이념, 가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이다.

넷째, 중국의 과학기술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이에 대한 경쟁력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신년사에서 ‘톈원1호’, ‘창어5호’, ‘분투자호’ 등 과학기술 영역에서 거둔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중국의 기초과학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중국의 기초과학의 성과와 우리의 응용과학의 성과를 접목시켜 시너지를 발휘하는 정책모형 개발도 고려할 시점이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